



지난 31일 새벽 스위스 베른의 '슈타드 드 스위스' 경기장에서 열린 스페인과의 평가전에서 대표팀 GK김진현이 손쓸 틈도없이 스페인의 카솔라가 세번째골을 성공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칼의 음모

서울올림픽 금박탈 벤 존슨 “루이스가 음료에 약물 넣어”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최대의 스캔들을 일으켰던 '비운의 육상스타' 벤 존슨(50)이 자신의 금메달 박탈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31일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따르면 어린 축구교실 강사로 변신해 현재 멜버른에 머물고 있는 존슨은 서울올림픽 100m 결승 뒤 가진 약물검사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라이벌이었던 칼 루이스 측의 음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존슨은 약물검사서 일종의 근육 강화제인 스테로이드 스테노조롤을 복용했던 것으로 관명패 금메달을 박탈당했다. 존슨은 “나는 결코 스테로이드 스테노조롤을 복용한 적이 없다”며 “루이스 캠프에서 내가 마셨던 음료에 스테로이드 스테노조롤을 집어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존슨은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이 같은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며 “나는 함정에 빠졌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존슨은 그러면서 서울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자신의 명예를 한순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어디를 가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약물 스캔들로 인해 죽을 만큼 괴로웠다고 회고했다.

존슨은 지금은 완전히 평화로워진 상태이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자서전 '서울 투 스울(Seoul to Soul)' 작업에 여념이 없는 상태라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88 서울올림픽 남자 100m 경기에서 벤 존슨(가운데)은 9초79의 세계신기록으로 1위, 칼 루이스(오른쪽)는 9초92 올림픽 기록을 세우며 2위로 골인했다. 하지만 벤 존슨은 약물검사서 양성반응이 나와 금메달을 박탈 당했다.

뱅~뚫린 수비그물

‘무적함대’ 스페인에 1-4 완패 ... 한국이 얻은 교훈

“압박축구로 카타르 넘어라”

강한 상대엔 수비하며 공격을

아쉬울 것조차 없는 완패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 1차전 카타르전을 앞둔 최강희호(號)가 모의고사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최강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31일 새벽(한국시각) 스위스 베른의 '슈타드 드 스위스' 경기장에서 '무적함대' 스페인과 치른 친선경기에서 전반을 1-1 동점으로 마쳤지만 후반에 상대의 페널티킥과 프리킥 골까지 겹치면서 1-4로 대패했다.

어차피 경기전부터 승리의 희망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최강희 감독도 이미 예견하고 있었다. 스페인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다. 모든 것이 카타르, 레바논과의 2014년 브라질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맞춰져 있다고 이야기해 왔다.

그렇다면 스페인전은 무엇을 얻기 위한 경기였나를 생각해 봐야 한다. 최강희호의 정확한 좌표와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한판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스페인전은 최강희호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확실하다. 월드컵

최종예선전에서 노출될 대표팀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최강희호의 강점인 '낙공'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스페인전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술에 관한 한 스페인선수들을 당장 넘어가서 힘들다. 볼트레핑만봐도 그 길이에서 차이가 현격하다. 따라할 수 있는 것을 따라해야 한다. 바로 '수비하며 공격하기'다. 스페인 선수들이 볼 소유권을 뺏겼을 때를 주목해야 한다. 상대에게 공을 뺏기면 주변에 있는 최소 3명의 선수가 움직인다. 공과 제일 가까운 선수는 즉각 압박에 들어간다. 제 2의 선수는 볼을 받아줄 선수를 견제한다. 제 3의 선수는 한국의 패스 줄기를 자르는 위치로 이동한다. 다시 볼을 뺏으면 바로 역습이다. 수비하며 공격하라는 전형을 보여준다.

이날 경기에서 한국의 조직력은 둔함 그 자체였다. 창의적이지 못하고 짜인 전형대로 움직이는 배우의 발연기 쯤으로 보였다. 조직력이 경직되다보니 스페인의 빠른 패스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따라갈 수 없었다. 압박을 위해 달려가면 이미 볼은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었다. 체력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한

국 선수들이지만 볼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조직력이 가벼워져야 한다. 선수들의 창의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스페인 선수들은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각자가 활발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개별적 움직임의 한계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조직의 틀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공간을 마음껏 휘젓고 다녔다. 개인의 능력에 조직의 힘이 뒷받침되지 무서운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한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목에 의해야 할 요소다.

1대4 결과의 교훈은 경기 경험이었다. 조용형의 핸드볼 파울이 그것이다. 볼을 막기 위해 몸을 돌리면서 팔을 올리는 것은 수비수들의 나쁜 습관이다. 고의성은 없었다지만 경기의 맥을 완전히 끊어 놓았다.

카솔라의 프리킥 골 역시 경험의 산물이다. 카솔라가 프리킥을 잘 때 수비수와 골키퍼는 크게 휘둘 것으로 예상했다. 수비벽 아래로 깔리는 프리킥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카솔라의 창의성 역시 큰 경기력을 많이 했던 경험에서 나왔다. 이 역시 최강희호가 월드컵 최종예선을 통과하기 위해 꼭 몸과 마음에 새겨야 할 사항이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실망 않고 카타르전 준비에 최선”

최강희 한국팀 감독

31일(한국시각) 스위스 베른에서 치른 스페인 축구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1-4로 패배한 최강희 감독은 수준 차이를 느끼게 한 경기였지만 젊은 선수들이 발전 가능성을 보인 만큼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남은 기간에 최대한의 조합을 찾겠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당초 상대의 압박이 심할 때 미드필드에서 공을 끊고 경기하는 부분을 주문했는데 잘 된 부분도 있고, 잘 안된 부분도 있다”며 “오늘 경기를 토대로 카타르전 준비를 잘 해야겠다”고 말했다.

-지동원과 손흥민의 조합은 어땠는가.
▲두 선수와 오른쪽 날개의 선수들에게 공격적으로 여러가지 주문을 했다. 상대가 어려운 상대였던 것은 맞지만 젊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 해줬고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남은 조합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월드컵 최종 예선을 앞둔 감독으로서 우리팀 전력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는가.
▲우리는 상대가 강한 압박을 해왔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경기력을 보일 수 있는지 실험했다. 지금 경기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남은 기간 최대한 조합 찾고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다.



“한국팀 빨라 전반전에 힘들었다”

보스케 스페인 감독

한국과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에서 4-1 승리를 거둔 스페인의 비센테 델 보스케 감독은 한국팀을 빠르고 좋은 팀이라고 평가하면서 전반전이 힘들었다고 밝혔다.

-오늘 경기 내용을 평가하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기였다. 한국팀이 후반전에 페널티킥으로 추가 실점한 후 집

중력을 잃으면서 우리 팀이 기회를 얻어 많은 골을 얻을 수 있었다.
-지금 선수들의 상태는 어떤가.
▲이번에 스위스에서 치른 평가전에서 세르비아에 이어 한국도 이겨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다.
-첫 골을 넣은 토레스를 평가하면.
▲토레스 선수는 1년간 국가대표팀 경기에서 골이 없었는데 오늘 골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스럽다.

/연합뉴스

●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15,000원 ● 이리랑하우스 한정식: 25,000원~

호남제일 음식문화를 사랑하는 이리랑하우스 여/름/메/뉴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건강한 우리 음식으로
즐거운 만남을 준비하겠습니다!!**

금수장호텔·이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홀플러스 건너편)

● 착한 가격의 편안한 객실 ● 각종 모임을 위한 연회장, 접객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이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